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7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 3(1) 땅끝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 단원에서는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땅끝」과 학습 활동에 제시된 「1942열차」의 표현상 특징,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표현과 그 효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땅끝」

(나)

광양에서 하동 지나 삼랑진 지나 물금 지나 부전

가네 세 량의 객차를 달고 가네 북천 사람은 함안 사
람을 부르네 함안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나발
과 팽과리를 불고 치듯 시끌시끌하게 덜커덩거리며
가네 젓먹이 아이와 젊은 연인과 축하객이 함께 가
네 침침하고 눈매가 가느스름한 김천 출신의 나도
끼여 가네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가네 소나기구름 실어 나르는 바람의 널빤지 가듯
가네 연한 버들과 높은 미루나무와 먼 무지개를 신
고 가네 들판 수로의 깨끗한 물과 무논에 비추어 보
며 가네 무논에 비친 푸른 봄산은 일하는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신록(新綠)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을
시간만큼 조금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 「1942열차」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상이 전 개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시어가 지닌 중의적 의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간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나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각의 청각화를 통해 시상을 점층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3.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동사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덜컹덜컹거리며'와 같은 시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 (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중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감정을 직접 서술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보여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가정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두려움과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을 달리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신유형

이 단원에서는 「땅끝」과 「1942열차」의 표현상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외에도 「땅끝」과 「1942열차」를 비교하여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나희덕 시인의 이야기를 <보기>로 제시하고 이에 나타난 인식과 같은 인식이 드러난 시구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들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 주제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땅끝」

6. 윗글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살다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자세가 필요해.
- ② 삶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자연 속으로 떠나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 좋겠어.
- ③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④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한다면 그 힘으로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 ⑤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켜야겠어.

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광양에서 하동 지나 삼랑진 지나 물금 지나 부전 가네 세 량의 객차를 달고 가네 북천 사람은 함안 사람을 부르네 함안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나발과 팽과리를 불고 치듯 시끌시끌하게 덜커덩거리며 가네 젓먹이 아이와 젊은 연인과 축하객이 함께 가네 침침하고 눈매가 가느스름한 김천 출신의 나도 끼여 가네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가네 소나기구를 실어 나르는 바람의 널빤지 가듯 가네 연한 버들과 높은 미루나무와 먼 무지개를 실

고 가네 들판 수로의 깨끗한 물과 무논에 비추어 보며 가네 무논에 비친 푸른 봄산은 일하는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신록(新綠)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을 시간만큼 조금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 「1942열차」

- ① 윗글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보기>는 외부 풍경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윗글은 <보기>와 달리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보기>는 윗글과 달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며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 ② ㉡은 ㉢과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시련과 절망을 주는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③ ㉢은 ㉠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 ④ ㉠과 ㉢은 모두 시상의 전환을 이끄는 접속어로 화자의 태도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화자가 ㉠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공간으로 현실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곳이다.

9.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믿고 ‘땅끝’을 찾아갔었군.
- ② 삶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을 청각적인 음성 상징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에 떠밀려 ‘땅끝’에 서는 경험을 했겠군.
- ④ ‘땅끝’에서의 경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뒷걸음질을 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겠군.
- ⑤ 화자는 ‘땅끝’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이 존재함을 깨달았겠군.

10.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는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으로 도피하는 게 상책이야.
- ② 힘겨운 현실을 잊기 위해 속세를 떠나 종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겠어.
- ③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안에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야지.
- ④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⑤ 내 삶에 닥쳐온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야겠어.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땅끝」

1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바다라는 자연물을 통해 절망감을 위로 받고 있다.
- ② 화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고통 없는 이상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⑤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12.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에서 ‘땅끝’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실존의 의미를 지닌 장소로 인간 삶의 보편적 여정을 담은 서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작품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동경과 좌절을 담은 회상, 성인이 된 화자가 실제 마주한 ‘땅끝’의 현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순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감각적 표현과 역동적인 이미지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그려내며 인간의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 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는 이상을 향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망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②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는 꿈이 좌절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낸 것이군.
- ③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시련이나 한계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군.
- ④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는 두려운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는 화자의 강한 극복 의지를 시각화한 것이군.
- 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땅끝」

(나)

광양에서 하동 지나 삼랑진 지나 물금 지나 부전
 가네 세 량의 객차를 달고 가네 북천 사람은 함안 사
 람을 부르네 함안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나발
 과 팽과리를 붙고 치듯 시끌시끌하게 덜커덩거리며
 가네 젓먹이 아이와 젊은 연인과 축하객이 함께 가
 네 침침하고 눈매가 가느스름한 김천 출신의 나도
 끼여 가네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가네 소나기구름 실어 나르는 바람의 널빤지 가듯
 가네 연한 버들과 높은 미루나무와 먼 무지개를 싣
 고 가네 들판 수로의 깨끗한 물과 무논에 비추어 보
 며 가네 무논에 비친 푸른 봄산은 일하는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신록(新綠)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을
 시간만큼 조금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 「1942열차」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정서를 직접 표출하는 반면, (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나)는 산문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특정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가)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나)는 묘사와 도치 등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가)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나)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① 1연의 그네 타기는 보육원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시절 시인의 소망과 연결되는 군.
- ②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된다’는 구절은 시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삶의 시련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땅끝’이 젖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그곳에 이르리라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군.
- ④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나비를 쫓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겠군.
- ⑤ 시인의 삶을 알고 작품을 감상하니 화자가 처한 상황과 깨달음이 작가의 실제 경험과 밀접하게 닿아 있음을 알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희덕 시인은 어머니가 충남의 한 보육원에서 총무로 일을 하여서 보육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시인은 남과는 다른 생활환경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답답할 때면 보육원을 나와 무작정 혼자 걸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게 돌아와 혼이 난 날에는 그네를 타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시인이 열한 살일 때 어머니가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직장을 옮겨서 가족들도 서울로 이사하였고, 시인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일하던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다섯 개씩 하며 등록금을 내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했다. 삶이 힘들어서 수도권, 기도원 생활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숙명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둠도 시에 들어오면 어둠만은 아닌 게 되는지, 때로 눈부시고 때로 감미롭기도 했죠. 그런 암전에 대한 갈망이 저물녘의 시들을 낳았나 봐요.”

15. <보기>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 ㄱ. ‘노을’과 ‘나비’는 ‘어둠’이나 ‘파도’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어이다.
- ㄴ. ㉠은 청각과 시각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ㄷ. ㉡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ㄹ. 시간의 흐름을 ‘현재-과거-현재’로 구성하여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경어체가 아닌 ‘~지’와 같은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① 화자의 어린 시절과 현재를 오가고 있다.
- ③ ‘땅끝’은 절망의 공간이자 희망의 공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 ④ 화자는 땅끝에서 위태로움 속에 스며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 ⑤ ‘삐걱삐걱’(청각), ‘떨고’(시각) 등 감각적 이미지와, ‘나비를 쫓듯’과 같은 비유가 쓰였다.

2. [정답] ④

(가)는 ‘~지’, ‘~는 것이’ 등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지나’, ‘가네’ 등의 시어와 ‘~은 ~을 부르네’, ‘~듯 가네’ 등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① (나)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 ② 자아 성찰의 태도가 두드러지는 것은 (가)이다.
- ③ (나)에는 시간과 관련된 시어는 나타나지만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두 작품 모두 시각의 청각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정답] ③

‘덜커덩거리며’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므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 ① ‘지나’, ‘가네’ 등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② ‘시끌시끌하게’와 같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동사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문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음성 상징어 뒤에 ‘-하다’, ‘-거리다’ 등이 결합될 경우 음성 상징어로 보지 않으나, 학교에 따라 음성 상징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의 견해를 따를 것)
- ④ ‘나발과 팽과리를 불고 치듯’ 등 직유법이 쓰였다.
- ⑤ ‘무논’, ‘고무신’ 등 향토적 소재가 사용되었다.

4. [정답] ④

(가)는 ‘~지’, ‘~어’와 같은 평서형으로 마무리되며, 설의적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과거와 현재의 시상이 교차된다.
- ② ‘노을’과 ‘어둠’ 등의 대립적 시어가 쓰였다.
- ③ ‘~지’와 같은 종결 어미가 반복된다.
- ⑤ 제목이자 소재인 ‘땅끝’은 절망이자 희망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5. [정답] ④

(가)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과 같이 무생물인 파도를 생물처럼 표현하여 화자가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낸다. (나)에는 활유적 표현이나 화자의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① (가)에는 색채어가 활용되지 않았으며, (나)에 ‘푸른’과 같은 색채어가 쓰였다.
- ② (가)와 (나) 모두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③ (가)에 과거 행위를 후회하는 가정법은 쓰이지 않았다.
- ⑤ (나)는 열차 안팎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할 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6. [정답] ⑤

화자는 절망의 공간인 땅끝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태도가 적절하다.

- ① 화자는 꿈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 ② 화자는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 ③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태도는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④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7. [정답] ⑤

윗글은 ‘~지’와 같은 종결 어미를, <보기>는 ‘~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① 윗글에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보기>는 기차 안팎의 풍경을 묘사할 뿐,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지 않다.
- ③ 윗글의 '이상하기도 하지 ~ 것이'와 같은 표현에서 도치법이 쓰였으나, <보기>에도 '~ 가네 ~면서'와 같이 도치법이 쓰였다.
- ④ <보기>에는 반어적 표현이나 현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8. 정답 ②

- ㉠은 노을을 잡아먹는 존재로, ㉡은 파도가 밀려오는 막다른 공간으로 둘 다 화자에게 절망감을 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 ① ㉠과 ㉡은 모두 어린 시절 화자가 추구했던 이상과 꿈을 상징하므로 대조적이지 않다.
- ③ ㉠은 이상적 공간이나 ㉡은 절망적 공간으로 인식되므로 같지 않다.
- ④ ㉠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식이 전환된다.
- ⑤ ㉡은 화자가 살면서 밀려온 공간이며, 이곳에서 화자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9. 정답 ④

- 화자는 땅끝에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절망적 상황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지, 뒷걸음질을 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은 아니다.
-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삐걱삐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에서 의도치 않게 땅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를 통해 절망 속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10. 정답 ③

- 이 시의 화자는 절망의 극한인 땅끝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가 가장 적절하다.
- ① 현실 도피는 시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 ② 종교적 귀의에 대한 내용은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 다.
- ④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나 개인의 노력이 무력하다는 내용은 시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⑤ 운명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화자의 깨달음과 맞지 않는다.

11. 정답 ⑤

- 화자는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의 경험을 통해 '땅끝'을 절망의 공간에서 희망이 스며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① 바다는 화자에게 위로가 아닌 위태로움과 시련을 주는 대상이다.
- ② 과거를 회상하지만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는 '나'라는 말로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④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므로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 정답 ④

- 파도가 땅을 먹어 들어오는 모습은 화자를 땅끝으로 내모는 위협적인 현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① 어린 시절 화자의 노력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꿈이 좌절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어둠에게 잡아먹혔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해당 부분의 '땅끝'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과 좌절의 공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⑤ 해당 부분의 '땅끝'은 절망적이지만 그 안에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보여 준다.

13. 정답 ②

- (나)에서도 '김천 출신의 나도 끼여 가네'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서정 갈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③ (나)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이지만 '지나'와 '가네'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다.

④ (가)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는 역설적 인식이며, (나)는 풍경 묘사와 도치법이 특징이다.

⑤ (가)의 ‘땅끝’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며, (나)의 ‘무논’, ‘고무신’ 등은 토속적 시어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14. 정답 ④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성숙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를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정신적 혼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네를 탔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1연의 그네타기가 어린 시절 시인의 소망과 연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해당 구절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삶의 시련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시 땅끝에 이르리라는 것은 반복되는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겠다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시인의 삶과 화자의 상황이 밀접하게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①

ㄱ. 이상을 의미하는 노을, 나비와 시련을 상징하는 어둠, 파도가 대조된다.

ㄴ. ‘빠걱빠걱’의 청각적 이미지와 ‘떨고’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결합하고 있다.

ㄷ. 파도를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고 표현한 활유법이 사용된 것이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ㄹ. 어린 시절의 과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